“누리예산 미편성…또 부모들 마음 졸여야하나”

■ 오늘부터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 쟁점은

교육감 공약 ‘고교 무상급식 확대’도 집중 추궁할 듯

3일부터 실시되는 광주시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재정 상황과 연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및 교육감 공약 사업인 ‘고교 무상급식 확대’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의원들은 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사업비의 허술한 집행 및 관리 실태, 공립 교원들의 음주운전 실태 및 적발된 교원들에 대한 교육청의 미온적 징계 문제 등도 집중적으로 따져묻겠다는 각오다.

시의회가 교직원 채용 비리를 계기로 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문제를 시의원 연루 여부와 상관없이 다룰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예고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시의원들은 우선,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은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밝힌 대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기로 한 상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 책임’임에도 근본적 대책 없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역 교육청에 강요하고 있다는 게 광주교육청 입장이다.

김옥자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당장, 올 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자체 예산으로 처리한 점 등을 내세워 또다시 부모들을 볼모로 한 해 동안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올 해 ‘어린이집 예산은 국가 책임’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오다, 뒤늦게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자체 예산으로 지급키로 결정, 원칙도 저버린 채 애꿎은 학부모들만 일 년동안 마음 졸이게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 내년부터 특성화고까지 무상 급식을 확대키로 한 점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시의원들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에도 불구, 특성화고까지 무상 급식을 확대한 것은 ‘교육감 공약 실현’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심철의 의원은 공립 교원들의 음주운전 실태 및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들에 대한 교육청의 미온적 징계 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문태환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참여 방과후 컴퓨터 교실의 부적절한 운영 행태’와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내걸고 진행중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제도의 미흡한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를 벌일 작정이다.

문상필 의원은 성적 등급을 3구간으로 나눠 이뤄지는 ‘고교 배정 방식’과 대학 진학률을 연계해 고교 배정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광주교육청이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학습 부진아)들을 위한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亞문화전당 둘러보는 대구경북 언론인 2일 광주전남 언론인회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한 대구경북 언론인 클럽 회원 60여명이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56 해짐 17:36 달뜸 09:39 달짐 20:12

낮부터 추위 풀려요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화재예방에 유의하세요.

◇ **지역별 날씨** (℃)

광 주	흐린뒤맑음	5/17	보 성	맑음	2/15
목 포	흐린뒤맑음	8/16	순 천	맑음	5/16
여 수	맑음	7/15	영 광	흐린뒤맑음	4/16
나 주	흐린뒤맑음	2/17	진 도	흐린뒤맑음	8/16
완 도	흐린뒤맑음	7/16	전 주	흐린뒤맑음	5/16
구 례	맑음	2/15	군 산	흐린뒤맑음	5/16
강 진	흐린뒤맑음	4/17	남 원	흐린뒤맑음	2/15
해 남	흐린뒤맑음	3/17	흑산도	흐린뒤맑음	10/15
장 성	흐린뒤맑음	3/1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0
	먼바다	서~북서	1.0~2.0	서~북서	0.5~1.5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
	먼바다(동)	서~북서	1.0~1.5	서~북서	0.5~1.0
	먼바다(서)	서~북서	1.0~2.0	서~북서	1.0~1.5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01	03:48
	21:33	16:24
여수	04:18	10:53
	16:59	22:54

◇ **주간 날씨**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6/18	7/20	8/20	9/19	11/13	4/14	3/15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캠페인·학술대회 열린다

제 87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날(3일)을 맞아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캠페인·학술대회 등이 열린다.

전남대는 3일 오후 사회과학대 교수회의실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세계한인과 국제사회의 지지’라는 주제로 ‘제 87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 특별학술회의’를 연다.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워싱턴포스트 등에 언급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록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날 오전 수완중·신가중 등에서 ‘학생의 또 다른 이름, 시민’이라고 적힌 기념 배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등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을 펼친다.

학생의 날을 맞아 적극적인 삶을 학생들 스스로 개척하자는 취지의 행사도 열린다. ‘대청마루’(대한민국 청소년의 마음 속 꿈을 이루는 모임)라는 단체는 이날 오전 전남대 후문 앞에서 ‘청소년 스스로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교육 바꾸기 청소년 100만 서명운동’을 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시의회에 ‘누리예산 175억 편성’ 재의 요구

교육청 “동의없이 예비비 편성 위법” … 시의회 “합의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

광주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다만, 교육청이 올 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육청 입장을 재차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은 2일 국·과장 회의를 열고 지난달 ‘제 252회 임시회’에서 교육청 예비비 175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데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127조 3)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 시의회가 교육청 동의 없이 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점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의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의결기관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별도의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안건에 부칠 수 있다.

시의회는 당시 광주시와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통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처리 합의’에 주목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편성 절차에도 불구, 광주시가 지급하지도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300억원을 지급할 것처럼 예측해 교육청 예산으로 미리 잡아놓고 여기에 교육청 예비비까지 더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시의회는 당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올 해 마지막 정리추경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음에도 ‘서로 합의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며 편성했다.

광주시교육청 안팎에서는 당시 시의회를 제외한 채 광주시와 교육청간 합의,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의회 역할 부재’가 제기되는데 따른 불편함도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감지됐었다.

하지만 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 어린이집 예산을 정리 추경 때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교육청의 의지를 밝히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의회가 당시 결정을 번복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제소 등의 절차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 속내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내년 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린다

유치원들은 내년 유치원비를 올해보다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1%로 정해 2일 고시했다.

유아교육법 25조 3항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내년 유치원비 인상률을 1%로 정했다. 예를 들어 올해 정부 지원금 22만원과 학부모 부담금 28만원을 합해 전체 유치원 원비가 50만원이었던 유치원은 내년에 5000원 이상 원비를 올릴 수 없다. 만약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올려 받으려면 중앙과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외국 출장 중 선물 김영란법 아닌 공직자윤리법 해당

광주 출연기관 선물 자진신고

공직자가 외국 출장중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외국 출장 중 받은 선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광주시는 2일 산하 출연기관 임원들이 “중국 출장에서 술과 차 등을 선물 받았다”며 신고해 와 가격감정에 들어갔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 임직원 3명은 지난달 1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무석시 한 기관을 방문해 청년 기업 교류 및 중국시장 진출 등의 협약을 했다. 이들은 관례에 따라 중국 기관에서 준 선물을 들고 귀국한 후, 김영란법 저촉에 대비해 시에 신고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는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한화 1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들이 들고 온 선물은 전통술 2병과 전통차 3개, 도자기 모양의 주전자 3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